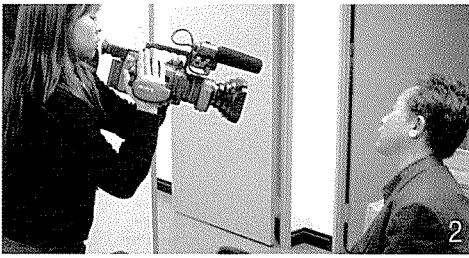


비상대책위원회 11월 활동 보고서

# 공정위 제소로 힘 실린 '제휴카드 폐지'

SK텔레콤은 “전체 제과시장의 의견을 존중해 파리바게뜨와의 제휴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당초 11월 28일로 계획됐던 SK텔레콤 사옥 앞 집회를 연말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당분간 양사의 움직임을 주시하기로 했다. 글과 사진 김미선 기자



1 비상대책위원회 황일하 위원장이 전국자영제과점대표자대회에서 투쟁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 공정위 제소에 힘입어 어려운 자영제과점의 현실과 비대위 활동에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다. 3, 4 전국자영제과점대표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지는 제과인.



숨 가쁜 한 달이었다. '이동통신사 제휴카드폐지 및 생존권보호 제과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리바게뜨와 SK텔레콤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비대위를 이끄는 8명의 공동위원장이 공정위 제소를 시작으로 두 거대기업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11월 24일 SK텔레콤은 “전체 제과시장의 의견을 존중해 파리바게뜨와의 제휴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당초 11월 28일로 계획됐던 SK텔레콤 사옥 앞 집회는 연말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당분간 양사의 움직임을 주시하기로 했다.

## 비대위, SK텔레콤·파리바게뜨 공정위 제소

지난 10월 27일 비대위는 위원장 8명의 공동 명의로 파리바게뜨와 SK텔레콤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다. 비대위는 공정위에 제출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 행위신고서'에서 “SK텔레콤과 파리바게뜨가 각각 이동통신과 베이커리에서 시장 지배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로서 공정한 경쟁을 가장 앞장서 지켜야 하는데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배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에 위반된다”는 제소의 취지를 밝혔다.

제소에 앞서 비대위는 SK텔레콤과 파리바게뜨에 제휴 할인카드 폐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2차례나 띄웠으나 업체들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고,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마케팅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 자문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정위 제소를 감행했다. 공정위 제소 덕분에 TV·신문·잡지 가릴 것 없이 여러 언론이 앞다퉈 거대기업의 횡포 탓에 무너져가는 자영제과점의 사연을 보도하면서 비대위투쟁에 여론이 집중되는 반사효과를 얻었다.

비대위는 여론이 뜨거워졌을 때 활동의 수위를 한층 높여 투쟁의 성과를 높이기로 결정하고, 지난 10월 31일 위원장 8명의

합의 아래 전국 제과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계획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SK텔레콤 사옥까지 이어지는 피켓 행진과 사옥 앞에서 펼치는 퍼포먼스 등으로 집회형식을 결정짓고, 비대위의 탁정현 사무국장이 11월 초 해당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이어 지난 11월 7일 대전에서 '전국 자영제과점대표자대회'를 열고 집회에 관한 제과인 추진까지 최종 마무리했다.

### SK텔레콤 “전체 제과업계 의견 존중할 것”

가두집회를 일주일 앞두고 비대위의 여론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자 파리바게뜨와 SK텔레콤이 “자영제과점의 어려움은 시장 경쟁의 문제일 뿐 제휴카드 탓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사)대한제과협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 11월 24일 SK텔레콤 로열티\_마케팅기획팀 송중호 팀장은 (사)대한제과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영모 회장, 비대위 김중주·주재근 공동위원장과 밀도 있는 대화를 갖고 “앞으로 제과업계와 업무제휴 계약 체결을 위해 (사)대한제과협회 등 업계 전체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다음 날인 11월 25일 공동위원장 비상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전향적 자세에 대해 논의를 갖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은 SK텔레콤과의 협약을 공식문서로 확인하고, 11월 28일로 계획됐던 가두집회를 SK텔레콤과 파리바게뜨 사이의 기존 계약이 일단락되고 새로운 계약의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연말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은 SK텔레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협상의 효과를 한층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또 다른 협상 전략에 따라 내린 것이다. 비대위는 두 업체 사이의 내년 제휴계약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다음 제휴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즈음 더욱 대대적인 거리집회를 다시 조직하기로 했다. 반면 지난 11월 18일 있었던 파리바게뜨와의 협상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비대위 활동 적극 지원

거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한 제과업계의 용기 있는 행동에 전국 기능인을 대표하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도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천명하고 나섰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은 “이동통신사 제휴카드는 비단 제과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밑바탕으로 ‘작은 경제’를 꾸려가는 모든 기능인이라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며 “거대기업을 상대로 용기 있는 투쟁을 시작한 제과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연합회 차원에서 제과업계의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월 28일 SK텔레콤과 파리바게뜨에 사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식문서를 띄우고, SK텔레콤이 약속한 연말까지 제휴카드 폐지에 큰 진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차원에서 제과업계의 투쟁에 동참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10월 개설된 비대위 홈페이지(www.vbakery.or.kr)는 제휴카드 폐지활동을 지지하는 제과인의 하나 된 목소리로 뜨겁게 달구지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비대위 활동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비대위 탁정현 사무국장은 “제휴카드 폐지를 위해 제과인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먼저 필요하다”면서 “진행상황을 바로바로 확인하고 활동에 대해 개인적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비대위 홈페이지에 많은 참여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

### ■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일지

06/16	비대위 결성-김중주·유현식·이기남·이상태 조계중·주재근·최원도·황일하 8명의 공동위원장 선출
09/09	비대위 사무국 개설
09/29	비대위 소식지 발간-전국 자영제과점, 정부 단체, 국회 부처, 언론사 발송
10/13	Siba 행사장 내 서명 운동
10/18	비대위 홈페이지 오픈 www.vbakery.or.kr
10/19	이동통신사 및 프랜차이즈에 제휴 철폐 요구 1차 공문 발송
10/21	2차 공문 발송
10/24	‘제휴카드가 자영제과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설문조사 실시
10/27	SK텔레콤과 파리바게뜨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로 제소
11/03	종로경찰서에 SK텔레콤 앞 집회 신고
11/07	전국자영제과점대표자대회 집회 추진
11/18	파리바게뜨 관계자 면담-큰 진전 없이 답보
11/24	SK텔레콤 관계자 면담-전체 제과업계 중심의 제휴사업 약속
11/25	비상 공동위원장의 11월 28일 집회 잠정적 유보